

사랑과 한의 정서 녹아든 민족의 노래

아리랑 실체 찾아나선 20년 각고의 결실 책으로 펴낸 박민일 교수

“눈이 올러나 비가 올러나 억수장마 질러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정선아리랑의 첫부분이다.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곡조를 띠고 있는 정선아리랑. 그러나 아리랑이 정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 자리를 차지 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읊조리는 것이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또한 외국인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소리이다.

아리랑. 아리랑은 과연 무엇인가. 아리랑은 누가 만든 노래인가. 또 아리랑은 한국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한국사람은 왜 근원도 잘 모르는 아리랑고개를 넘나들면서 제 가슴에 찢멍 드는 줄도 모른 채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것일까. 누구든 한번쯤 제 자신을 향해 던져 봄직한 질문들이다. 「한국 아리랑문학 연구」 「아리랑 자료집 1」을 펴내고 최근 「아리랑 자료집 2」(이상 강원대출판부)를 펴내면서 다시 아리랑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박민일교수(55, 강원대 국문학)는 이러한 질문에 총체적인 답을 해주고 있다.

강원도 토박이와 아리랑의 질긴 인연

“草民(박교수는 백성을 뜻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이 지은 노래를 살펴보면 어려운 이론이 뭐 필요합니까? 제 이름 석자도 못쓰는 사람들이 입속에서 흥얼거리던 노래인데 현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더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교수의 저서에서 외국의 문학이론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아리랑의 실체를 두 발로 찾아나선 20여년간의 노력에서 얻어진 박교수의 저서는 이론 이전의 것이 될 듯하다.

박교수는 강원도 토박이다. 대학을 다니던 1955년부터 1959년 사이를 제외하고 박교수가 강원도를 떠난 일은 거의 없었다. 대학 졸업 후 박교수는 강원도로 돌아와 잠시 교직에 있다가 강원도 교육위원회 비서실에서 10년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박교수와 아리랑의 질기고도 오랜 인연이 시작된다.

60년대 후반 강원일보에서 태백의 역사, 산하, 인물, 전설 등 강원도의 문화를 발굴 정리하는 사업을 펼치게 됐는데, 이 사업에 그는 춘천권의 민요와 전설을 담당하게 됐다. 당시 그가 발굴해낸 춘천의 아리랑 수는 3개에 불과했지만, 이때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아리

랑 찾기”에 나서게 된 그는 82년과 83년에 「강원도 아리랑고」라는 논문을 발표, 강원도 아리랑이 약 19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금 강원도아리랑의 종류는 약 50종가량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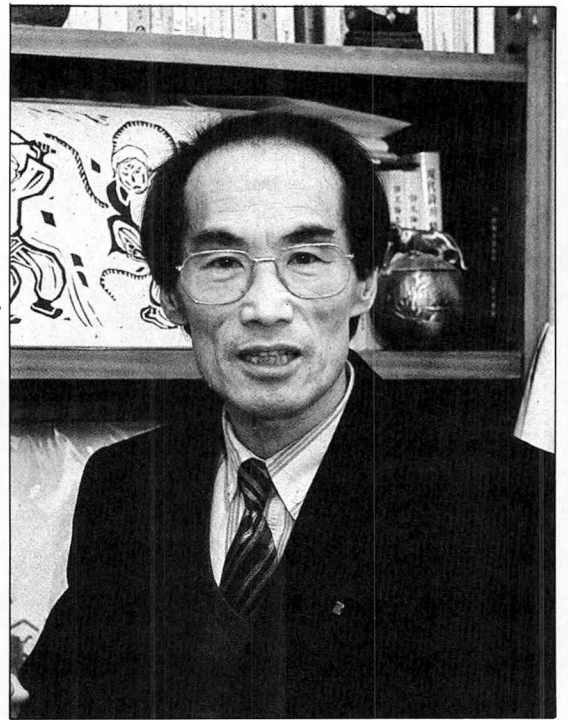
박민일 교수의 아리랑에 관한 연구작업 중 첫번째로 내놓을 수 있는 「한국 아리랑문학 연구」는 우선 아리랑의 수가 약 186종 2277연에 이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교수는 서론에서 아리랑이 “한국인의 복합성, 곧 콤플렉스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정신과 감정, 욕구와 꿈이 뒤엉킨 복합체가 아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 아리랑을 모두 수렴해서 총체적으로 고찰한 것은 없다”는 박교수. 이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아리랑 연구의 빈약성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박교수가 아리랑에 집착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아리랑이 민에서 民으로 구비 전승된 연유로, 그 연원을 찾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된 아리랑의 연원에 대한 낙랑 音轉說, 신라초기 關英음전설, 고려중기 阿利水音전설, 고려말 全五倫의 아라리설, 조선 중종조 때 南師古의 亞裡嶺설, 조선 후기 대원군때 我離娘설 등을 대략 살펴 보면서 고려말 전오륜의 아라리설이 그 연원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한다.

전오륜은 旌善七人の 한 사람으로 고려가 망하자 정선으로 내려와 송도쪽을 바라보며 동분의 망국한을 탄식조가락으로 한시를 지어 부르자 정선인과 호사가들이 이 한시를 정리하고 꾸며서 지금의 정선아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 박교수의 주장이다.

異稱만 해도 무려 25종 내외에 이르는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어원을 박교수는 南古師가 저술한 「格庵遺稿」에 실린 ‘甲乙歌’중 ‘아리고개 정거장은/고대고대하던 다정한 님 계신 곳/아아리령 하하령/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고도 어려운 고개’라는 대목에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리령은 이상향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로 天佛의 세계로 가는 유토피 아적 정거장이다. 박교수는 또 아라리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라리’ 또는 ‘아라야’는 “무서운 현실공간에서, 혼들리는 의식세계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긴박한 시간대에서 있는 인간상”을 표현하고 “만물의 근원을 찾는 세계관과 우주관이 함축된 철학에 그 의미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교수는 아리랑의 어원에 대한 정

박민일교수는 이론서와 자료집의 만남을 통해 독자들이 아리랑을 음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세권의 연속적인 아리랑보고서는 서로 맞물리면서 아리랑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데 뜻이 깊다. “아리랑은 한민족 삶의 소리이면서 민족의 소리이고, 또한 아리랑은 통일을 여는 소리”라는 박교수의 20여 년간의 연구결론을 살펴본다.



박민일 교수.

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아리랑의 의미해석도 그 종류만큼이나 많다. 모두가 유추적 어법적 불교적 해석과 조명이 아닌 정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리랑이 구비문학일진대, 차라리 미정설로 남아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굴착토록 하게 하는 것이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아닐 수 없다.”

異稱만 해도 25종, 어원은 수수께끼

아리랑의 종류가 많은 만큼 그것이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다양하다. 아리랑의 주제를 분류해보면 애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가장 많다. 농염한 듯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만은 결코 드러내지 않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娛樂, 別離, 相思, 愛國, 風流, 結婚, 嘆老, 自立 등이 대부분으로 이 속에 사회상, 제도 윤리에 대한 극복의지, 소망 욕망의 소리, 남편에 대한 소유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아리랑에 들어 있는 사상적인 면을 살펴볼 때 유학이라는 이념은 제도권내의 이념일 뿐 일반 민중들의 생활과는 상당한 거리에 놓여 있음을 박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유교성에 대한 반발과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개인적 사회적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의 기본조류는 사랑이라는 것이 박교수의 양보하지 못할 주장.

박교수는 모든 아리랑이 정선아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역사, 문헌, 문학적 증거들을 통해 박교수는 여타의 아리랑이 정선아리랑을 삽입 접목 변모 개작 환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아리랑이 목적의식을 갖고 전파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름난 소리꾼들이 아리랑을 전파하는데 일조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그들보다는 정선뗏꾼, 인제뗏꾼, 보부상, 장들뱅이, 여행자, 이사가죽에 의한 전파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모두 ‘移動’이라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이동과정과 이동종료지역에서 정선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을 불렀다.

예를들어 정선의 뗏꾼들은 강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강변 주막집의 여자들이다. 뗏꾼들이 부른 노래중에 “도지거리 갈보야 술 걸르게/보메기 여울에 때 떠내려간다”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도지거리는 춘천근방의 지명. 당시 뗏꾼들을 잡아끄는 주막은 이외에도 삼악산 근처 덕두원, 팔당 근처 미음이 꽤나 유명했다고 한다. 갈보라는 말도 들병장수, 썩쟁이, 쉬쟁이로 불리는데 미음에 ‘석정래’라는 술집이 있어서 생활 속에서 가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뗏꾼들은 노랑진이나 마포까지 뗏목을 끌고와 공가(임금)를 받는데 돈의 대부분은 서울 장안의 유명한 여관에 있는 쉬쟁이들의 몫이

었다고. 물론 쉬쟁이들에게 들려주던 노래도 아리랑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처럼 전파된 아리랑은 각지역의 특수한 문화에 폭넓게 소화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신세타령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끌어모으고, 이것들은 다시 그 지역의 보편적인 생활관습과 한데 어울려 지금까지 각 지역에 특색있는 아리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박교수가 말하는 보편성은 인간의 공통된 감정에서 연유한다. 특히 아리랑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그 가락에 깊게 배어 있는데 최초의 정선아리랑이 고려의 멸망을 노래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리는 체념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문학을 체념의 문학, 한의 문학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랑 또한 그와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아리랑은 체념과 한을 극복하는 노래라고 박교수는 말한다. 즉 아리랑은 사랑의 소리라는 것이다.

땀뾰 등 이등성 가진 사람들이 전파

아리랑의 곡조는 크게 환조 애조 그리고 그 중간색의 음조를 띤다고 한다. 말 그대로 환조는 기쁨에 겨운 노래로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이 이에 속하고, 애조는 정선아리랑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중간색의 곡조는 강원도아리랑과 나운규의 아리랑을 꼽고 있다.

박교수가 아리랑에 대해 갖는 추억은 남과 다르지 않다. 그도 여느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민학교 2학년때 강원도 고성역전 광장에서의 일이다.

“당시 아리랑은 금지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징용을 갈 때 아리랑을 불러주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징병에 차출된 사람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일본노래로 그들의 결전을 북돋워 주고는 아리랑을 공개적으로 불러주었죠.”

해방 이후에도 아리랑은 계속 불렀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다. 무공을 세운 사람을 위한 야전파티에서는 막걸리 한 잔 놓고 ‘전우여 잘가라’ 등의 군가를 부르고 난 후 아리랑이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50년대 중반을 고비로 草民들의 입에서 가요아리랑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박교수는 “가요아리랑이나 가곡아리랑도 기존의 아리랑과 같은 위치에 놓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 속에도 우리민족의 정서가 함께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박교수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아리랑도 기존의 것들과 같은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데는 아리랑이 갖는 특수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아리랑은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소리이면서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효용이 무한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할머니 표현을 빌어서 그는 “이 끄대이 저 끄대이(이것 저것) 찍어다 붙이면 돼”라고 한다. 아리랑이 열린 장르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말이다.

박교수는 이론서와 자료집의 만남을 통해 독자들이 아리랑을 음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세권의 연속적인 아리랑 보고서는 서로 맞물리면서 아리랑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데 뜻이 깊다. 「한국 아리랑 문학 연구」가 아리랑의 체계를 세워놓은 것이라면 그 후에 나온 「아리랑 자료집」 1과 2는 예증자료들을 세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모아 놓고 있다.

이론서·자료집 결합시도로 총체성 부여

우선 「아리랑 자료집 1」은 정선아리랑, 북한속의 아리랑, 일본속의 아리랑, 중국속의 아리랑, 소련속의 아리랑, 문학아리랑, 음악아리랑, 영화아리랑 등에 관한 자료를 7백여면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 그중 일본속의 아리랑에 나오는 ‘가미가제 파이롯 조선인 탁경현 최후의 노래’ 편에는 2차대전 중 가미가제특공대로 나가 전사한 탁경현이라는 조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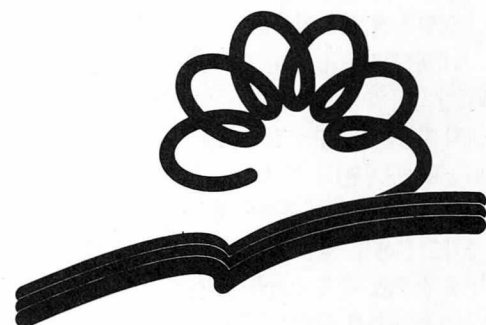
도 자료로 모아놓았다. 나운규의 아리랑은 저항과 대결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남과 북이 갈라져야 하는 이데올로기가 없다. 아리랑을 북경 아시안게임 때 단일 응원가로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한다.

박교수의 출판에 대한 정성은 대단하다. 책장정도 박교수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출판부면 으레 무거운 내용의 학술서적이거나 출판하고 책의 장정도 무겁기 그지없는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통념이라면 이 책은 여지없이 통념을 깨고 산뜻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책을 출판하는 데 도와준 여러 자료 제공자와 강원대 출판부 그리고 강원일보사 출판국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는 박교수는 “아리랑은 한민족 삶의 소리이면서 민족의 소리이고, 또한 아리랑은 이제 통일을 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라는 말로 아리랑을 정리한다.

— 이성수 기자

년이 출정 전날 아리랑을 부르고 전장에 나갔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속에서의 조선인의 애환과 아리랑으로 나타나는 탁경현의 정신에 일본인들도 머리를 숙였다 한다.

「아리랑 자료집 2」는 연극, 무용, 스포츠, 책, 신문 잡지, 방송매체, 생활 등에 자리잡은 아리랑에 관한 자료를 싣고 있다. 이 책에는 특히 김천홍이 작성한 정선아리랑舞譜도 싣고 있는데 이 무보는 1974년에 정선군에서 퍼냈던 것으로 한국무용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한다. 이밖에 92년 미국 LA에 흑인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 자경단의 암호도 아리랑이었다는 자료와 함께 아리랑의 전국적 보급의 계기가 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대본



| 책 | 을 | 펴 | 자 | 미 | 레 | 를 | 열 | 자 |

'93 책의 해